

『鄉藥救急方』의 口舌脣齒 질환에 관한 고찰

¹정유웅, ²김홍균*

¹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실, ²한국정통의학사연구소

A Study on the Oral, Glottal, Labial, and Dental Diseases in 鄉藥救急方

¹Jung Yoo Ong, ²Kim Hong-kyoon

1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2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medical history

Through researching 鄉藥救急方, the oldest medical text published in Korea in existence known to date, a study from a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erspective was conducted. This study aims to observe the treatment of oral, glottal, labial, and dental diseases starting from 統一新羅時代 to the Koryo dynasty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and also find out what clinical significance it withholds. 『鄉藥救急方』 proposes methods of nurturing the teeth and in doing so displays the tendency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f putting much weight on preventing diseases and nurturing the body. 『鄉藥救急方』 considers the oral, glottal, labial, and dental diseases as not only fundamental problems in itself but also treats them from a perspective that they are results of disharmony among the five viscera and the six bowels. The treatment methods mentioned in 『鄉藥救急方』 are directly cited in 『鄉藥集成方』 of early Chosun dynasty. In 『東醫寶鑑』 of mid-Chosun dynasty, however, changes and modifications are made to the prescriptions.

keywor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entistry, 鄉藥救急方

I. 서론

『三國史記』에 보면 유리 이사금을 왕으로 모시는 과정에서 떡을 물어 잇금이 많은 사람을 뽑아 유리 이사금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¹⁾는 이야기가 있다. 치아가 많은 사람이 지혜롭고 덕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로부터 치

이는 오복중의 하나라 하여 치아의 건강을 중요시 여겼음에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편, 『鷄林類事』의 “齒刷曰養支”란 기록에서 지금의 양치질이란 말의 기원이 된다²⁾고 하였으니,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려시대에 이미 양치를 했다는 기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강치료에 관해서 奇昌德³⁾은 통일신라시대부터 당시 수입된 의서인 『千金方』이나 『外臺秘要』에 口腔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다고 했다. 이로

* 교신저자 : 김홍균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220-14
02-458-5859
E-mail : naiching@naver.com

1) 金富軾著 · 李康來역, 『三國史記』 1, 70쪽.

2) 진태하, 「계림유사(鷄林類事)의 오사(誤寫) 오석(誤釋) 미해독 어휘고」, 82~84쪽 참조.

3) 奇昌德, 『한국치과의학사』, 64쪽 참조.

써, 구강치료에 관한 의료행위가 통일 신라시대에 이미 존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고려 시대에는 보다 발전된 구강치료술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李漢水⁴⁾는 고려시대는 주술적인 치과 요법이 널리 성행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주문으로 불경의 「佛說呪齒經」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있을 때 지긋이 응시하는 定心住⁵⁾의 방법과도 유사하여, 주문을 외우면서 치통을 깊이 살펴보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金斗鍾⁶⁾은 『鄉藥救急方』중에 이미 「齒蚶」이란 항목이 따로 되어 있으며, 『鄉藥集成方』중의 「口舌門」에는 『三和子方』, 「齒牙門」에는 『鄉藥簡易方』, 『御醫撮要方』, 『三和子方』 등이 인용되어 口腔, 齒科의 전문적 부분에 관한 처방을 논하였다고 하였다. 즉, 金斗鍾의 입장에서 양방적인 의도로 구강과 치과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口舌脣齒에 관한 한의학적 치료가 이루어졌음을 표현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근대 치의학은 1876년 개항이후 서구의 근대 문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1885년 알렌이 제중원을 운영하면서 발치(拔齒)를 시술한 것이 한국근대치의학의 효시라 할 수 있다.⁷⁾ 이러한 근대 치과의학으로부터 발전된 현대의 치과치료는 치아의 보존과 보철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한의학에서는 단순하게 독립된 구강의 문제가 아닌, 몸 전체적인 관점에서 口舌脣齒의 치료를 한다.

따라서 한의학에서 口舌脣齒 치료의 역사를 살펴보고 구강치료에 있어 받아들이기 만한 것을 찾아낸다면, 한의학의 새로운 영역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齒醫學史는 치과 대학 중심으로

근현대 위주로 연구 되어왔다. 근현대 이전의 치의학사는 소수의 연구자들에게서 현대 치과 의학을 바탕으로 연구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논자는 현재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最古의 의학 서적인 『鄉藥救急方』을 통해, 한의학적 관점으로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통일 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口舌脣齒를 어떻게 치료하였는지 의사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II. 본론

『鄉藥救急方』은 현존하는 한국 最古의 의서로서 고려 고종 때 大藏都監에 의해 간행되었으나 초간본은 전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조선시대 崔自河에 의해 중간된 판본이 일본에 남아있다.⁸⁾ 망실될 가능성이 있었던 『鄉藥救急方』이 다행히 남아있어 고려시대와 그 이전 시대의 의료행위의 방법과 향약의 실태를 알아볼 수 있다. 鄉藥이란 말에서 우리나라 약재를 사용했음을 뜻하고 救急方이란 말에서 병이 위급할 때에 치료 방법을 나열한 책이다. 하나의 질환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증상에 따른 치료방법을 제시하여 준다. 비록 중국의 의서를 많이 인용하였어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약재로 치료를 하려고 하였고, 누구나 쉽게 약재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약재 이름 뒤에 우리의 말로 속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뒤에 『東醫寶鑑』에 영향을 주어 단방에서 본초 이름 뒤에 한글로 약재를 표기하게 된다.

『鄉藥救急方』은 上·中·下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55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들 항목 중 대다수가 일상에서 위급한 상황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이다. 그러나, 누구나 약간의 지식을 습득하면 손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에 향약구급방의 의의가 있다. 이 가운데 음식을 섭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4) 李漢水, 『한국치학사』, 146쪽.

5) 이는 불가의 『능엄경(楞嚴經)』에 나오는 용어로, 지혜의 밝음을 잡아가지서 두루두루 맑고 고요하여 그 고요하고 오묘한 것이 항상 영거 있음을 "정심주(定心住)"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를 한의사 金弘卿(金弘卿)은 "병처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관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6) 金斗鍾, 『한국의학사』, 169쪽.

7) 辛在義, 『한국치의학사연구』, 55쪽.

8) 申榮日, 「향약구급방에 대한 연구」, 341쪽 요약참조.

9) 申榮日, 「향약구급방에 대한 연구」, 348쪽

는 口舌唇齒에 관련된 내용이 상권 17항의 「重舌口瘡」, 18항의 「齒疳蠱」, 중권 26항의 「口唇」, 하권 2항 「小兒方」에 나온다.

1. 상권 「重舌口瘡」

1) 重舌

중설을 치료하는 데는 뱀 허물을 태워 재로 만들어 곱게 갈아 조금씩 바르면 효과가 있다. 또한 오랜 솔 밑의 누런 흙을 분처럼 갈아서 우영 즙에 개어 붙이면 좋다. 어린아이의 중설은 鹿角을 곱게 갈아서 하루에 3~4번 혀 아래에 발라주면 낫는다. 또한 붉은 팔을 갈아 식초에 개어 붙인다. 또한 부들꽃 꽃가루를 혀 아래에 바른다.¹⁰⁾

혀뿌리 밑으로 혀처럼 생긴 작은 것이 나오는 것을 중설이라고 하며 이것은 주로 心脾의 열이 왕성하여 생긴다.¹¹⁾ 뱀허물은 蛇蛻로서 喉痺와 蠱毒을 치료하고 출산을 촉진시키며, 눈의 障翳를 없애고 악창을 잘 치료한다.¹²⁾ 오랜 솔 밑의 누런 흙은 伏龍肝으로 지혈시키고 응종의 독기를 잘 없애고¹³⁾ 脾胃로 들어가 溫中하면서 止血하는 효과¹⁴⁾가 있다. 붉은 팔은 적소두로 水氣를 내리고 응종과 피고름을 나가게 하며¹⁵⁾ 心·小腸으로 들어가

10) 원문해석은 申榮日의 「鄉藥救急方에 대한 연구; 復原 및 醫史學的 고찰」에 복원된 원문을 바탕으로 하였다. 『향약구급방』의 원본은 일본 宮內廳 書陵部에 있다. 아래의 원문은 복사한 필름을 (<http://jisik.kiomre.kr/>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참조하였다.

重舌口瘡

治重舌, 蛇脫皮, 燒爲灰, 細研, 以小許付之, 效.

又方, 用伏龍肝 出上, 研如粉, 和牛蒡 鄉名亦同 汁付之, 良.

小兒重舌, 鹿角末小許, 粉舌下日三四, 差

又用赤小豆末, 醋和付之. 又用蒲黃出上末, 貼舌下.

11) 허준, 『동의보감』, 584쪽.

12) 허준, 위의 책, 2096쪽.

13) 허준, 위의 책, 1996쪽.

14) 본초학교실, 『본초학』, 407쪽.

15) 허준, 『동의보감』, 2003쪽.

혈분의 열독을 내리는 작용¹⁶⁾을 한다. 부들꽃 꽃가루는 蒲黃으로 성질은 평하면서 어혈을 없애고 부은 것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다.¹⁷⁾ 적소두와 포항은 心으로 들어가서 심장과 혈분의 열독을 꺼서 중설을 치료하고, 복통간은 脾胃가 냉하여 생기는 중설에 쓰일 수 있다. 아이의 경우에도 심비의 열보다는 허증으로 보고 녹각을 썼다.

2) 木舌

목설을 치료하는 데는 가마솔 밑의 그을음을 식초에 개어 혀에 붙이면 침 거품이 나오는데 혀가 원상태로 될 때까지 계속한다.

혀가 갑자기 부어서 입안에 가득차고도 입 밖으로 나와 돼지 오줌보에 공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된 것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것을 치료하는 데는 가마솔아래의 그을음과 소금을 같은 양으로 곱게 갈아 혀의 겉과 속에 바른다. 일설에는 식초에 개어 혀 아래에 바르면 바로 낫는다고 한다.¹⁸⁾

木舌은 舌腫이라고도 하며 心脾의 열이 막힌 것이다.¹⁹⁾ 가마솔아래의 그을음은 鎊墨이라고도 하며 蠱毒·中惡·血暈에 주로 쓴다. 쇠붙이에 상한게 바르면 새살이 돋고 지혈이 된다.²⁰⁾ 가마솔 아래의 그을음은 숯과 같은 성분이지만, 숯보다는 더 건조하고 따뜻하여 발산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해독작용이 있기 때문에 식초나 소금에 개어서 바른 열독이 잘 빠져나온다.

3) 口舌瘡

16) 본초학교실, 『본초학』, 309쪽 참조.

17) 허준, 위의 책, 2160쪽.

18) 理木舌, 取火每 釜 釜下黑也, 醋和付舌, 當出涎末, 又塗之, 舌如故即止.

理舌忽然腫塞如猪胞狀, 滿口不理, 須與死, 取釜黑, 和鹽小許, 等分細研, 表裏付. 一云, 和醋塗舌下, 立差.

19) 허준, 위의 책, 583쪽.

20) 허준, 위의 책, 1999쪽.

목구멍이나 입, 혀가 헐어 문드러진 것을 치료하는 데는 藜荷를 술에 담갔다가 그 술을 입에 머금었다 행귀내면 낫는다. 혀가 헐어 문드러진 것을 치료하는데 3촌 크기의 손가락만한 甘藷를 거칠게 잘라 맑은 꿀 3홉과 돼지기름 3홉을 여기에 넣고 잘 섞으면서 졸여 대추알 만하게 환을 만든 다음 입에서 천천히 녹여 먹으면 신기한 효과가 있다.²¹⁾

양하는 우리나라 남쪽에서 많이 나는 생강과의 식물로, 나물로 많이 심어 먹는 약초이다.²²⁾ 성질은 약간 따뜻하며 맛은 맵다²³⁾. 구창에 양하를 술에 담가 입에 머금었다 행구는 것은 『東醫寶鑑』에서 언급되었듯이 허화로 인한 구창에 감초와 건강을 가루 내어 씹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²⁴⁾ 양하는 따뜻하여 허혈을 빠져나가게 하고 감초는 독을 풀면서 화를 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양하와 감초 모두 허증으로 인한 구창에 응용할 수 있다.

李漢水²⁵⁾의 『한국치학사』에서는 양하를 薄荷로 표기하고 있다. 이것은 『향약구급방』을 복원하는 데 있어 申榮日²⁶⁾의 「향약구급방에 대한 연구」와 차이가 있다. 박하가 열로 인한 구설창에 쓸 수도 있지만 원문 필름 복사본²⁷⁾과 대조 결과 양하가 맞다.

2. 상권 「齒蚘匿」

1) 養齒法

이를 양생하는 방법은 주엽나무 열매 꼬투리 두 개와 소금 반냥을 함께 벌겍게 구운 다음 부

드럽게 갈아서 밤마다 이를 닦으면, 한 달 뒤에는 흔들리는 것, 피가 나는 것, 벌레 먹은 것 등이 다 낫고 이가 단단해진다.²⁸⁾

주엽나무는 콩과의 식물로 우리나라 산기슭이나 물가에서 자란다.²⁹⁾ 주엽나무의 열매인 梔菴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맵고 딱딱하다. 단단한 癥癩를 치료하고 九竅를 통하게 하며, 노채충을 죽이고 두 풍을 치료한다.³⁰⁾ 이런 주엽나무 열매와 소금을 구워서 양치질에 응용한 것이다. 소금은 鹹味이니 水에 속하여 뼈를 강하게 하고 조협은 맵고 딱딱하여, 치아를 단단하게 하여 충치를 예방하는 데 좋다. 고려시대 의학에서도 한의학의 특징인 예방과 양생을 중요시 했던 단면을 보여 준다.

2) 牙齒痛

어금니가 아린 것을 치료하는 데는 버드나무 가지 한줌을 잘게 썰어 소금을 약간 탄 물에 넣고 달여서 그 물을 머금고 있으면 효과가 아주 좋다.³¹⁾

어금니가 아픈 데는 무씨 14알을 곁에 붉은 껍질은 버리고 곱게 갈은 다음 사람의 젖에 개어 왼쪽 이빨이 아프면 오른쪽 콧구멍에, 오른쪽 이빨이 아프면 왼쪽 콧구멍에 조금씩 넣어주면 바로 낫는다.³²⁾

버드나무가지는 柳枝로서 치통과 풍열의 붓고 가려운 데 쓴다.³³⁾ 무씨는 蘿菴子로 맛이 매우면서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창만과 적취를 치료하는 약이다.³⁴⁾ 어금니가 아플 때, 무씨를 갈아 좌측의

21) 理喉中及口舌生瘡爛，酒漬藜荷 鄉名寸間。含漱差。理舌生瘡爛，甘草如指大三寸，麤剉，清蜜三合，豬脂三合，合煎相得合，如棗大，稍稍咽之，頻用神效。
22) <http://www.nature.go.kr/>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23) 허준, 위의 책, 2138쪽.
24) 위의 책, 581쪽.
25) 李漢水, 『한국치학사』, 117쪽.
26) 申榮日, 「향약구급방에 대한 연구」, 71쪽.
27) <http://jisik.kiom.re.kr/>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28) 養齒法，以早莢出上兩挺，鹽半兩，同燒令通赤，細研，夜夜用揩齒，一月後，有動者齒及血齩齒，並差，其齒牢固。
29) <http://www.nature.go.kr/>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30) 허준, 『동의보감』, 2238쪽.
31) 理牙齒疼，柳枝一握，細剉，入小鹽水煎合之，甚妙。
32) 理牙痛，以蘿菴子唐書實二七粒，去赤皮，細研，和人乳汁，若左牙痛，即右鼻中點，如右牙疼，即右鼻中點之，立效。
33) 허준, 위의 책, 2239쪽.
34) 허준, 위의 책, 2125쪽.

병은 우측에서 치료하고, 우측의 병은 좌측에서 치료하는 좌병우치·우병좌치의 개념으로 무씨의 매우 방향성을 이용하여 開竅하여 풍치를 치료한다. 이러한 외치방법은 『東醫寶鑑』 「牙齒」의 <塞耳鼻止牙痛方>³⁵⁾에 귓속을 막는 법, 코에 붙여넣는 법 등 보다 많은 종류가 나옴으로써 치료방법의 다양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3) 齒痛

이가 참을 수 없이 아플 때는 닭의 흰 똥을 태운 다음 갈아 그 가루를 형겅으로 싸서 아픈 곳에 놓고 물고 있으면 낫는다.

또한 이가 아플 때는 쇠무릎을 태워 재로 만들어 이 뿌리를 닦아주면 좋다.

또한 치감늑과 이에 벌레가 먹은 것을 치료하는 처방은(처방의 내용이 빠져 있다).³⁶⁾

이가 아픈 것을 치료하는데 바로 효과가 있는 처방은 주엽나무 열매를 갈아 탄 알만하게 만들어 비단 형겅으로 싸 다음 신 식초에 넣고 끓여, 뜨거워지면 아픈 이에 물고 있다가 식으면 다시 뜨거운 것으로 바꿔서 하는데 신기한 효과가 있다.

또한 이가 아픈 데는 구기자나무 껍질 한 되를 식초 한 되에 넣고 반 되가 되게 달인 다음 식초를 입에 물고 있다가 식으면 뱉는데 바로 낫는다.³⁷⁾

닭똥은 역질풍을 치료하며 풍으로 인해 아픈 곳에 붙이는 데 사용된다.³⁸⁾ 쇠무릎은 우리나라 곳곳에 나는 약재로 寒濕으로 인하여 생기는 슬통이

나 노인 小便短小를 치료하는 데 쓰인다.³⁹⁾ 닭똥은 風으로 인한 치통에 쓸 수가 있고, 쇠무릎은 주로 寒으로 인한 치통에 쓰일 수 있다. 구기자나무 껍질은 성질이 차서 주로 熱로 인한 치통에 쓰인다.

4) 齲齒

①齲齒 治法

또한 우치를 치료하는 데는 이스라지 뿌리의 흰 껍질을 잘라 물에 진하게 달여 머금는데 따뜻한 것을 머금었다가 식으면 뱉는다. 우치는 이를 벌레가 먹어 구멍이 난 것을 말한다.

또한 충치로 통증을 참을 수 없는 데는 복숭아씨를 까맣게 태워 아픈 곳에 놓고 물고 있으면 바로 통증이 멎는다. 또한 馬夜目 마전자인데 말발굽에 동전 만하게 끼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을 형겅에 싸서 이의 위에 놓고 물고 있으면 효과가 좋다.⁴⁰⁾

이스라지의 뿌리는 郁李根으로 치통, 치아 뿌리가 붓는 것과 충치에 주로 사용된다.⁴¹⁾ 옥이인이 脾大腸小腸으로 들어가 潤腸하면서도 利水하는 성질이 있어 부종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⁴²⁾. 이를 이용하여 옥리근을 사용하였다. 충치로 통증이 있는 경우 옥리근 달인 물로 양치하면 효과가 좋을 것이다.

복숭아씨는 桃仁으로 맛이 쓰고 달며 어혈과 血閉에 주로 쓰고 삼충을 죽인다.⁴³⁾ 肝, 大腸經으로 들어가 어혈을 치료하고 行血하고 응저를 치료 한

35) 허준, 위의 책, 602쪽; 雄黃定痛膏, 殺蟲丸, 塞耳藥, 哭來笑去散, 治牙痛方 참조

36) 齒痛不可忍, 取鷄屎白, 燒末, 綿裹, 安痛處咬, 立差. 又齒痛, 用牛膝, 燒灰, 揩齒根, 良. 又方齒蚶蠹蟲牙.

37) 又齒痛立效方, 右取阜莢子, 爲末, 以帛裹如彈丸大, 於醎醋中煮熟之, 卽於齒痛處咬之, 冷卽易, 神效. 又齒痛, 以醋一升, 煮枸杞草皮一升, 取半升, 熱含冷吐, 卽差.

38) 허준, 위의 책, 2024쪽.

39) 허준, 위의 책, 2148쪽.

40) 又理齲齒, 以郁李 山叱伊賜羅次 根白皮切, 水煮濃汁, 含之, 熱含冷吐.

齲齒者, 蟲食齒有孔也.

又齲齒痛不可忍, 燒桃人令黑, 着痛齒咬之, 立定.

又用馬夜目 行馬脚內如錢 綿裹, 咬着齒端, 效.

41) 허준, 위의 책, 2241쪽.

42) 본초학교실, 『본초학』, 248쪽.

43) 허준, 『동의보감』, 2114쪽.

다.⁴⁴⁾ 따라서 검게 초하여 지혈하고 行血하여 충치를 치료한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막힌 어혈을 삭이지 못하여 당기고 아프면서 송곳으로 찌르는 듯 하는 어혈로 인한 치통⁴⁵⁾에 桃仁을 태워서 쓸 수가 있다.

마야목은 馬錢子를 뜻한다. 마전자는 풍습을 치료하는 약으로 통증을 멈추고 消腫하는 효능이 있다.⁴⁶⁾ 마전자 또한 잇몸의 붓기를 빠지게 할 수가 있다.

<齲齒>에서는 <齒痛>보다도 병이 진행되어 구멍이 나거나,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오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 쓸 수 있는 외치법을 설명하고 있다. 윗잇몸은 죽양명위경의 낙맥이 주관하고 아랫잇몸은 수양명대장경이 주관한다.⁴⁷⁾ 따라서 주로 양명경으로 귀경하는 옥리근이나 도인을 사용하여 치료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벌레 잡는 법

노소를 막론하고 齒窟으로 벌레가 먹어 몇 년이 되어도 낫지 않는 데는 작맥쥐보리 「鼠矣包衣」과 고희엽 박잎(朴葉)삼국사기에서는 “신라인은 호를 박이라 한다.”고 했다. 삼십 매를 잘 씻어놓고, 작맥을 길이는 2촌, 넓이는 1촌, 두께는 5푼 정도로 만든 다음 박잎으로 싸서 50~60개를 만든다. 이것을 3년 된 식초에 담갔다 한낮이 되면 2개를 꺼내어 불에다 구워 따뜻하게 만든 다음 입에다 넣고 이의 양쪽을 찌질하는데 이것이 식으면 다시 한다. 구리로 만든 그릇에 물을 받아 놓고 그 속에서 찌질한 것을 풀어 헤쳐 보면 3푼 정도 크기의 벌레가 나오는데, 늙은 것은 황색이고 어린 것은 백색이며, 많게는 20~30 마리 적게는 10~20 마리가 나온다. 이 처방은 매우 좋은 효과가 있다.⁴⁸⁾

이에 벌레가 먹어 구멍이 생긴 것을 치료하는 데는 송진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구멍에다 집어 넣고 있다가 벌레가 송진에 붙으면 빼내는데 효과가 좋다.⁴⁹⁾

충치를 실제로 벌레가 먹어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벌레를 빼내는 방법을 설명한 부분이다. 치아가 썩은 것에 대한 원인을 벌레로 보고 적극적으로 빼내기 위해 벌레가 싫어하는 열을 가하여 자연적으로 밖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이 방법은 『東醫寶鑑』에 <出牙蟲殺蟲法>에도 나온다. 회충을 치료하기 위해 배를 따뜻하게 하는 安蛔理中湯⁵⁰⁾을 투여하는 것과 유사한 이치를 이용한 방법이다.

송진은 松脂라고 하는데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쓰고 달며 瘡瘍을 치료하고 통증을 멈추며 충을 죽인다.⁵¹⁾ 송진을 추처럼 뾰족하게 만들어 벌레 먹은 구멍에 넣는 것을 이한수⁵²⁾는 『韓國齒學史』에서, 辛在義⁵³⁾는 『한국치의학사연구』에서 현재의 아말감 충전과 같은 치아 충전으로 보고 있다. 예로부터 충치로 인한 치아의 부식은 있었을 것이고, 그 공간에 음식물이 끼이거나 하면 불편하고 통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충치로 인한 구멍을 메우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송진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논자도 생각한다.

5) 牙齒不生

이가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데는 소똥 속의 콩을 태워 재로 만들어 곱게 간 다음, 먼저 이가 나지 않는 곳을 침으로 찌러 피를 조금 내고 이것을 바르면 좋다.⁵⁴⁾

44) 본초학교실, 『본초학』, 424쪽.

45) 허준, 『동의보감』, 599쪽.

46) 본초학교실, 『본초학』, 271쪽.

47) 허준, 『동의보감』, 596쪽.

48) 又齒齲牙蟲, 積年不差, 從小至老, 雀麥 鼠矣包衣, 右用苦瓠葉 朴葉 籬人謂瓠爲村三國史出 三十枝, 洗淨, 取雀麥, 剪長二寸許, 廣一寸, 厚五分, 以瓠葉裹了, 作五六十裹, 以三年

醋漬之, 至日中, 以兩裹火中炮令熱, 納口中齒外邊, 熨之, 冷更易, 取銅器貯水, 水中解裹洗之, 卽有蟲三分, 老者黃色, 少者白色, 多則二三十枚, 小則一二十枚, 此一方甚驗.

49) 又理齒有蟲孔, 取松脂銳如錐, 納孔中, 蟲緣松脂出, 差.

50) 黃道淵, 『證脈方藥合編』, 202쪽.

51) 허준, 『동의보감』, 2213쪽.

52) 李漢水, 『한국치학사』, 118쪽.

53) 辛在義, 『한국치의학사연구』, 24쪽.

어금니가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데는 암탉 똥끝이 등근 것 과 수탉 똥끝이 뾰족한 것을 같은 양으로 곱게 갈아 놓고 침으로 먼저 이가 나오지 않는 곳을 짜른 다음, 약을 붙이면 노인은 20일 젊은이는 10일이면 이가 나온다.⁵⁵⁾

소의 똥은 水腫 및 궤란에 쓰는데, 태운 재는 灸瘡이 오랫동안 낫지 않을 때 쓴다.⁵⁶⁾ 소똥 속의 콩 태운 재는 지혈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어금니가 나오지 않으면서 풍치처럼 통증을 일으키며 붓기만 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침으로 먼저 구멍을 뚫고 암탉 똥과 수탉 똥을 갈아서 풍치와 같은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

6) 牙齒動搖 (이가 뿌리가 드러나거나 흔들리는 것)

이 뿌리가 드러나거나 이가 솟는 것을 치료하는 데는 생지황 한 근을 나무절구에서 찧고 소금 두 홉을 섞은 다음 이것을 두께가 반촌쯤 되게 밀가루 반죽으로 겉을 싸서 잿불에 묻어 연기가 나지 않을 때까지 구운 후 겉의 밀가루를 제거하고 사향을 조금 섞은 후 이뿌리에다 바른 다.⁵⁷⁾

어금니가 흔들리는 것을 치료하며 도리어 단단하게 만드는 처방은 주염나무 열매 적당한 양을 태워 재로 만들어서 곱게 간 다음 생지황 즙으로 버무려 계란 노른자만 하게 환으로 만든다. 다시 이것을 완전히 빨갛게 태운 다음 식으면 곱게 갈아 다시 지황 즙으로 버무려 환을 만들어 다시 태우는데 같은 방법으로 세 번한다. 이것을 유발에 넣고 곱게 갈아서 매번 물이 묻은 작은 종이로 약을 묻혀서 이에 붙이고 있으

면 신기한 효과가 있다.⁵⁸⁾

이뿌리가 드러나거나 흔들리는 것은 腎元이 허해서 생긴다.⁵⁹⁾ 신원이 허하면 허열이 떠서 잇몸이 들뜨게 되고, 이뿌리가 드러나면서 치아가 흔들리게 된다. 생지황은 성질이 차고 맛이 달아서 열을 풀고 피와 어혈을 깨뜨린다.⁶⁰⁾ 생지황으로 腎經에 들어가 補陰하면서 상초의 허열을 끄고 소금으로 근골을 강하게 할 수 있다. 징가와 적치를 치료하는 조합 열매를 갈아서 생지황 즙을 혼합하여 달걀노른자 만하게 만들어, 잇몸의 허열을 치료하면서도 풍치를 치료할 수 있다.

7) 잇몸병

또한 잇몸이 붓고 아픈 것을 참을 수 없는 데는 우엉뿌리 한 근을 찧어 즙을 내서 소금 한 돈과 함께 은그릇에 넣고 고와 고약을 만든 다음 매번 잇몸에 바르는데, 심한 사람도 세 번에서 다섯 번을 넘지 않아 낫는다.⁶¹⁾

우엉뿌리는 우방자의 뿌리로 牛蒡根인데 상한과 중풍으로 얼굴이 부은 것과 소갈로 인한 열증을 치료한다.⁶²⁾ 잇몸이 감기나 풍치로 인하여 부을 때 사용할 수 있다.

3. 중권 「口脣」

1) 口乾

입이 마르고 열이 나는 것을 치료하며 기를 내러주는 처방은 石膏 옥처럼 빛이 나며 흰데 빵게 되면 좁쌀만 해지나 모두 바로 풀어진다. 가루 5홉

54) 理牙齒不生, 取牛糞中豆, 燒灰細研, 先以針刺之, 小血出, 卽以灰塗之, 良.

55) 理牙齒不生, 雌鷄屎 頭長者雌, 雄鷄屎 頭尖者雄 右等分, 細研, 以針刺齒不生處, 貼之, 老人二十日, 少者一日, 當出.

56) 허준, 『동의보감』, 2043쪽.

57) 理牙齒宣露挺出, 生地黃一斤, 木臼搗碎, 入鹽二合和之, 上用白麩裹, 厚可半寸, 於燻灰中, 燒斷煙, 去焦麩, 入麝香小許, 貼於齒根上.

58) 理牙齒動搖, 却令堅固方, 阜茨 出上 不限多少, 燒爲灰, 研令細, 然後以生地黃汁, 搜和作團如鷄子, 又燒令通赤, 候冷, 搗羅爲末, 又以地黃汁搜成團, 更燒如此三遍, 入乳鉢, 研令細, 每用濕紙片子摻藥, 貼齒, 神效.

59) 허준, 위의 책, 601쪽.

60) 허준, 위의 책, 2146쪽.

61) 腫痛不可忍, 用牛蒡根一斤, 搗取汁, 入鹽一錢, 於銀器中熬成膏, 每用塗齒根下, 重者不過三五度, 差.

62) 허준, 위의 책, 2180쪽.

과 꿀 2되를 물 3되에 넣고 달이는데 먼저 석고를 넣고 달여서 2되를 만든 다음 꿀을 넣고 다시 졸여 대추알만큼을 입에 넣고 녹여 먹되 다 녹여 먹으면 다시 한다.

입이나 혀가 마르고 심신이나 머리 눈이 피로한 데는 麥門冬 겨우사리 「冬口土伊」 즙 3홀, 좋은 꿀 3홀, 씨를 뺀 대추 30개를 사기그릇에 넣고 시루 안에서 찐 다음 꺼내서 매번 한 손가락씩 입을 물고 녹여 먹는다.⁶³⁾

석고는 성질이 차고 맛은 맵고 달면서 胃火를 끌 수 있다. 입이 마르거나 혀가 타거나 목구멍에서 열이 나는 경우에 쓸 수 있다.⁶⁴⁾ 맥문동은 성질이 약간 차고 맛은 달다. 虛勞로 인한 口乾이나 갈증에 사용된다.⁶⁵⁾ 석고를 꿀에 넣고 졸여서 복용약을 만들어 먹는 방법은 석고의 찬 성질을 꿀로 조화시키면서 위화를 내려 구건을 치료하려는 것이다. 지나치게 몸이 허하거나 찬 사람 좋지 않다.

그러나 맥문동은 補益약으로서 生津하는 효능⁶⁶⁾이 있기 때문에 피로하면서 입이나 혀가 마르는 증상에 응용할 수 있다.

口舌脣齒와 관련된 처방 중 內服하는 약이다. 대추알크기로 만들어 녹여 먹도록 하여 外治도 하면서 오장육부에 들어가 작용하도록 하였다.

2) 脣瘡

입술이 험 것을 치료하는 데는 동쪽 벽의 마른 흙을 곱게 갈아서 붙인다. 또한 소금기 있는 메주를 끓인 물에 하룻밤 놓아두었다가 문드러지면 찢어 바른다. 또한 삼씨를 태워 재로 만든 다음 곱게 갈아 우물물에 개어 바른다.⁶⁷⁾

동쪽 벽의 마른 흙은 東壁土라고 하는데 동쪽에서 해가 뜰 때 햇볕을 가장 먼저 받는 벽의 흙을 취하므로, 성질이 평하거나 따뜻하고 탈항이나 설사, 객란에 쓴다.⁶⁸⁾ 삼씨는 麻子로 성질이 평하면서 차고 맛이 달다. 허로를 보하고 오장을 윤택하게 하고 대장의 풍열을 치료하고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⁶⁹⁾ 그러므로 동벽토를 쓸 때는 허증으로 피곤하거나, 차서 생기는 설사나 객란을 동반하는 순창에 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콩이 해독작용이 있으므로 소금기 있는 메주는 식중독이나 다른 여타의 독으로 인한 순창에 응용된다. 마지막으로 삼씨는 心脾가 열을 받아서 생기는 순창에 쓸 수 있다.

3) 緊脣

입술이 땅기고 얼굴이 붓는 것을 치료하는 데는 쇠비름을 찢어 즙을 내서 바르면 바로 낫는다. 또한 말뚝구리를 태워 쓰는데, 살생을 꺼려하므로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다.

입술이 붓는 것을 緊脣 혹은 瀧脣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치료하는 데는 송진을 녹인 다음 거기에 기름을 조금 넣고 부드럽게 만들어 환부에 붙인다.⁷⁰⁾

쇠비름은 馬齒莧으로 성질은 차고 맛은 시며 온갖 부은 것과 악창을 치료한다.⁷¹⁾ 말뚝구리는 蜣螂으로 성질은 차고 맛은 짜면서 소아의 경간이나 어른의 전광에 쓰이며 악창을 치료하는 데 쓴다.⁷²⁾ 송진 또한 창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긴순의 원인이 주로 脾臟이 實해서 생기는 열로 인한 것이므로 찬 약을 사용하였다.

63) 理口乾熱下氣方, 石膏 如玉瑩白, 碎之雖如粟, 皆方解. 末五合, 蜜二升, 以水三升, 煮石膏取二升, 納蜜更煎, 含如棗核大, 咽汁盡, 更含之.

口唇乾燥, 心神頭目不利, 麥門 冬口土伊 汁三合, 清蜜三合, 棗三十枚取肉, 右藥內瓷瓶中, 於飯甑上蒸之, 取出, 每服一匕, 含咽津.

64) 허준, 위의 책, 225쪽.

65) 허준, 위의 책, 2149쪽.

66) 본초학교실, 『본초학』, 588쪽.

67) 理脣瘡, 取東壁乾土, 細末付之.

又方取鹽豉, 湯浸一宿, 爛研塗之.

又方取大麻子, 燒灰細研, 用井華水調塗之.

68) 허준, 『동의보감』, 1996쪽.

69) 위의 책, 2001쪽.

70) 理脣緊面腫, 用馬齒 出上 菜汁塗之, 立差.

又方燒蜣螂 出上, 惡傷命, 今不具注.

又理緊脣, 亦云脣 口脣腫也 用松脂鎔, 入小油令軟, 貼瘡上.

71) 허준, 위의 책, 2124쪽.

72) 허준, 위의 책, 2100쪽.

4. 하권 「小兒方」

어린이의 중설을 치료 하려는 데는 黃丹을 갈아 콩알만큼 혀 아래에 넣어주면 낫는다.

어린이의 혀 위에 눈과 같이 흰 것이 끼었을 때는 밤 가시를 달인 물을 솜에 묻혀 하루에 3~4번 흰 가루를 닦아 내는데, 겨울에는 밤나무 속껍질 달인 물로 씻어 주거나 닦아내어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⁷³⁾

황단은 약간 차고 맛은 매우며 독이 없으면서 심신을 안정시키고 경간과 전질을 치료한다.⁷⁴⁾ <重舌>에서 어린이의 중설에 녹각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황단으로 중설을 치료한다. 황단으로 혀중이 아니라 心熱이나 경기로 인한 중설을 치료할 수 있다.

밤의 가시는 능히 毒腫을 치료할 수 있다.⁷⁵⁾ 밤 가시가 조각자와 같이 뾰족하여 종기나 적취를 치료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어린이의 혀 위의 흰 것을 종기로 보고 치료한 것이다.

5. 「鄉藥救急方」, 「鄉藥集成方」, 「東醫寶鑑」의 비교

『鄉藥救急方』의 口舌脣齒질환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 초기의 『鄉藥集成方』 및 조선 중기의 『東醫寶鑑』과 비교 해보면 <표 1>과 같다.

III. 결론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最古의 의학 서적인 『鄉藥救急方』을 한의학적 관점으로 고찰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鄉藥救急方』에서 養齒法을 제시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양생을 중요시하는 한의학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2. 口舌脣齒와 관련된 治方으로 주로 外治法을 사용하였다. 주로 단방에 修治를 하여 外治法을 만들었다. 外治法의 종류로는 양치하는 가루제, 바르는 약, 붙이는 약, 씻는 약, 입에 머금은 약, 물고 있는 약, 고약, 혀 밑에 넣어 주는 약 등이 있다.

외치약 외에는 치아에 벌레 먹을 것을 치료하는 방, <口乾>에서 대추알 만하게 환약을 만들어 내복하는 방법과 치아가 나오지 않을 때 하는 침 치료법이 있다.

3. 『鄉藥救急方』중 口舌脣齒와 관련하여 사용된 약제들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고 구하기 쉬운 것들이다. 약제의 뒤에 우리나라 속명도 표기 하여 약제를 찾기 쉽게 하였고, 우리나라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제들로 치료를 하도록 하여 위급 상황에 바로 쓸 수 있게 하였다.

4. 의학적 지식을 조금만 습득한다면 누구라도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 손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고 있다.

5. 『鄉藥救急方』에서는 口舌脣齒질환을 자체의 기질적인 문제와 더불어 오장육부의 부조화를 원인으로 보고 치료하였다.

6. 『鄉藥救急方』을 통해,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한 口舌脣齒 치료의 원리와 방법은 구하기 쉬운 약제를 사용하여 外治法, 내복약, 침구치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했음을 알 수가 있다.

7. 『鄉藥救急方』에 실린 치료 방법은 조선 초기에 간행된 『鄉藥集成方』에도 거의 대부분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조선 중기에 간행된 『東醫寶鑑』에는 치방이 변화되고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73) 理小兒重舌, 黃丹末如豆大, 着舌下, 止.
小兒舌上生白胞如雪, 用煮栗刺, 以綿拭去白摩洗之, 日三四點, 冬月用栗木白皮煮汁, 洗之拭之, 勿令痛.

74) 허준, 위의 책, 226쪽.

75) 허준, 위의 책, 2108쪽.

『鄉藥救急方』의 口舌脣齒 질환에 관한 고찰

		약재명(속명)	鄉藥救急方	鄉藥集成方	東醫寶鑑	비 고
重舌 口瘡		蛇蛻 (뱀허물)	태워 재로 만들어 곱게 갈아서 바른다.	○	△<단방>緊脣重 類重齦 치료한 다76)	『東醫寶鑑』에 직접적으로 중설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구강의 염증을 치료한 것으로 보아 중설에도 마찬가지로 쓰일 것으로 짐작된다.
	重舌	伏龍肝 (오래된 술 밑의 누런 흙)	분처럼 갈서 우영 즙에 개어 붙인다.	○		
		赤小豆 (팥)	갈아 식초에 개어 붙인다.	○		
		蒲黃 (부들꽃 꽃가루)	혀 아래에 바른다.	○	○	중설에서 세 가지 책에 쓰이고 있다. 효과가 좋을 것이다.
		鹿角	곱게 갈아 3~4번 혀 아래에 발라준다.	○		『鄉藥集成方』 77)에서 는 『鄉藥救急方』처럼 어린이 증설에만 녹각이 쓰이는 것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木舌	鎊墨 (술 밑의 그을음)	식초에 개어 혀에 붙인다.	○	△<單方>百草霜 (오래된 부엌 어귀의 검댕)78)이 쓰임	『東醫寶鑑』에서 당목이 百草霜으로 바뀌었다. 비슷한 작용을 하는 약재를 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口舌瘡	囊荷	술에 담가 사용	○ 우슬과 황벽을 함께 술에 넣어 하루 묵혀 두었다 끓여 사용.79)		『鄉藥集成方』에서 다른 약재와 함께 쓰여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甘草	맑은 꿀과 돼지 기름 넣어 환으로 만들어 복용.		△건강과 함께 가루 내어 씹는다. ⁸⁰⁾	『東醫寶鑑』에서 외용제로 쓰인다.	
齒疳 齩	養齒法	阜莢 (주엽나무 열매)	소금과 볶아 갈아서 양치한다.			양생차원에서 양치법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鄉藥救急方』뿐이다. 『東醫寶鑑』에서는 단방과 <齒病含水方>에 양치할 수 있는 약재들이 제시된다.	
		鹽 (소금)	조협과 볶아 갈아서 양치한다.		○양치질 한다.		
	牙齒痛	柳枝 (버드나무 가지)	소금을 약간 넣고 달여 머금고 있다.	○			
		蘿菴子 (무씨)	껍질 벗겨 곱게 갈아 인유에 개어 좌측이 아프면 우측 코에 오른쪽이 아프면 좌측 코에 넣는다.	○			『東醫寶鑑』<塞耳鼻止牙痛方>에 치통이 있을 때 코와 귀를 약재로 막는 방법이 여러 종류 나온 것으로 보아 치료방법이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齒痛	닭똥	태운다음 갈아 그 가루를 형겔으로 싸서 물고 있다.	○			『鄉藥集成方』에는 『鄉藥救急方』처럼 치통에 외치 위주의 치방이 나오지만 『東醫寶鑑』에서는 7종 치통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내복탕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치통을 단순히 치아의 문제가 아닌 內傷과 外感의 문
		牛膝 (쇠무릎)	태워 재로 만들어 이뿌리 닦는다.	○			
		阜莢	비단에 싸서 식초에 넣고 끓여 뜨거워지면 물고 있다.	○			
		구기자껍질	식초를 같은 양 넣고 끓여 반이 되게 하여 입에	○			

『鄉藥救急方』의 口舌唇齒 질환에 관한 고찰

		물고 있다.			제로 보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齟齬	郁李根 (이스라지 뿌리)	물에 진하게 달여 머금는다.	○	○「牙齒」의 단방 ⁸¹⁾ 에 나온다.	세 가지 책에서 치통에 모두 쓰이고 있다. 효과가 좋을 것이다.
	桃仁 (복숭아 씨)	까맣게 태워 물고 입에 물고 있다.		△어혈치통에 桃仁承氣湯 ⁸²⁾ 으로 치료한다.	『東醫寶鑑』에서 도인을 외치가 아닌 어혈치통의 도인승기탕의 주된 약으로 쓰고 있다.
	馬錢子 (마야목)	형겉에 싸서 물고 있다.			『鄉藥救急方』에만 쓰여 구하기 힘든 약재이거나 효과가 떨어져서 이후의 책에는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雀麥	박잎에 싸서 식초에 담갔다 불에 다 구워 따뜻하게 만든 다음 입에다 넣고 찹질한다.		○	『鄉藥集成方』에는 없지만 『東醫寶鑑』에 <出牙蟲殺蟲法>에 나온다. 조선시대까지 쓰였던 방법으로 짐작된다.
	松脂	송진 끝을 뽕죽하게 만들어 구멍에 넣는다	○		
牙齒不生	소의 똥	소똥 속의 콩을 태워 재로 만들어 갈아서 침 치료 후 바른다,	○		
	암땀 똥, 수땀 똥	침 치료 후 갈아서 붙인다.	○	○사향을 약간 넣어 붙인다 ⁸³⁾ .	땀똥이 풍을 치료하는 것을 응용하여 풍치에 치료한다.
牙齒	生地黃	나무절구에 쪼		△독활산 ⁸⁴⁾ 에	

動搖		고 소금을 섞고 밀가루 반죽 후 구운 다음 밀가루 제거하고 사향 바른 후 이뿌리에 바른다.		생지황이 들어간다.		
	阜莢	태워 재로 만들어 갈아서 생지황즙과 버무려 환을 만들어 태운 다음 식으면 곱게 갈아 지황즙에 버무려 환을 만들고, 태우기를 세 번하여 곱게 간 후 치아에 붙인다.	○			
	잇몸 병 牛蒡根	즙을 내어 소금과 함께 고아 고약을 만들어 잇몸에 바른다.	○			
口唇	口乾	石膏	꿀과 물을 넣고 달여서 끓인 후 다시 꿀을 넣고 졸여 환을 만든다.	○『鄉藥集成方』勞瘵문 ⁸⁵⁾	△「口舌」<唇腫唇瘡>입에 갈증이 심할 때 죽엽 석고탕을 마신다 ⁸⁶⁾ .	구건의 원인을脾胃火로 보아 석고를 환약이나 탕약으로 복용한다.
		麥門冬	꿀, 대추를 사기 그릇에 넣고 찌서 입에 녹여 먹는다.	○『鄉藥集成方』勞瘵문		『鄉藥集成方』의 勞瘵문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陰虛火動의 구건을 치료한다.
	唇瘡	東壁土 (동쪽 벽의 마른 흙)	곱게 갈아서 붙인다.	○		『鄉藥集成方』까지 치료법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메주	소금기 있는 메주를 끓인 물에 하룻밤 놓아 두었다가 문드러지면 바른다.	○		『東醫寶鑑』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치료 방법에 있어 다변화되었음을 말해

『鄉藥救急方』의 口舌脣齒 질환에 관한 고찰

		麻子 (삼씨)	태워 재로 만든 다음 곱게 갈아 우물물에 개어 바른다.	○		준다.
	緊脣	馬齒莧	즙을 내어 바른다.	○		
		蜣螂	태워서 쓴다.			
		松脂	녹인 다음 기름을 조금 넣고 부드럽게 만들어 붙인다.	○		
小兒方		黃丹	갈아 콩알만큼 혀 아래에 붙여준다.	○		『東醫寶鑑』 「小兒」에는 소아의 口舌脣齒병이 다른 책처럼 따로 구분되어 나와 있지 않는다. 다만 「口舌」 ⁸⁷⁾ 에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이는 치법이 나 치방에 있어 특이한 경우 제외하고 성인에 준하여 치료했음을 알 수 있다.
		밤가시	달인 물을 솜에 묻혀 하루에 3~4번 닦아 낸다.			

<표 1>

- 76) 허준, 위의 책, 594쪽.
 77)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제48기 졸업준비위원회編, 『향약집성방』, 425쪽 참조.
 78) 허준, 위의 책, 592쪽.
 79)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제48기 졸업준비위원회編, 『향약집성방』, 423쪽.
 80) 허준, 위의 책, 581쪽.
 81) 허준, 위의 책, 612쪽.
 82) 허준, 위의 책, 600쪽.
 83)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제48기 졸업준비위원회編, 『향약집성방』, 443쪽.
 84) 허준, 위의 책, 601쪽.
 85)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제48기 졸업준비위원회編, 『향약집성방』, 206쪽.
 86) 허준, 위의 책, 581쪽 참조.
 87) 허준, 위의 책, 588쪽.

<참고 문헌>

1. 허준, 『東醫寶鑑』, 동의보감출판사, 2004.
2.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제48기 졸업준비위원회
編, 『향약집성방』, 정담, 2000.
2. 金富軾저 · 李康來역, 『三國遺事』 1, 한길사,
1998.
3. 진태하, 『고려조어연구논문집』, 한국국어교육
학회, 2003.
4. 奇昌德, 『한국치과의학사』, 아카데미아, 1995.
5. 李漢水, 『한국치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6. 金斗鍾, 『한국의학사』, 탐구당, 1981.
7. 辛在義, 『한국치의학사연구』, 참운, 2005.8.
본초학교실, 『본초학』, 영림사, 2000.
9. 黃道淵, 『證脈方藥合編』, 남산당, 1996.
10. 申榮日, 「향약구급방에 대한 연구」, 경희대
학교, 1995.
11. 진태하, 「계림유사(鷄林類事)의 오사(誤寫) 오
석(誤釋) 미해독 어휘고」,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2.

참고 사이트

1. <http://jsik.kiom.re.kr/>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
비스.
2. <http://www.nature.go.kr/>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
스템.